

8. 비육 중 비타민 A 급여 방법과 제한하는 이유는?

최근 한우 고급육 생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비타민 A 제한 기술인 것 같다. 비타민 A는 시각기능이나 생식 등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로서 생체의 발육을 유도하고 지방 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따라서 비타민 A를 결핍시키면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되어 고급육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분별한 비타민 A 결핍은 생체 중 감소 및 근육 수종, 요석증, 야맹증 특히 번식우의 경우에는 번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자가 사료를 제조하는 많은 농가에서 비타민 조절 실패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비타민 A 결핍을 고려하고 있다면 필히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장 단계별로 비타민 A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성장을 하는 육성기에는 비타민 A를 충분히 급여하고 지방 분화가 일어나는 비육 전기에는 비타민 적정 급여량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 그리고 비육 후기에는 다시 조금 올려서 급여하는 것이 좋다. 일반사료 및 공장형 TMR을 급여하는 경우에는 사료에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가 배합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우 사양표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이 조절되도록 배합비가 작성된다.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sa.go.kr>) 접속 → 연구활동 → 농가활용 프로그램 → 34번 한우사양표준 2019 프로그램(TMR 배합비 프로그램)

(동물영양생리과 / 063-238-7499)